

# 인도불교의 孝 樣相

張 椿 錫\*

## I. 서론

불교의 효는 그 이전에도 산발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20세기 초 돈황 사본의 발견이 그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이 유명한 동굴에서 僞經인 最古本 『父母恩重經』과 산실 됐던 『佛母經』 뿐 아니라, 唐代 효도 문학 작품들, 곧 「目連緣起」, 「目連變文」, 「大目乾連冥間救母變文」, 「董永變文」, 「舜子變」, 「孟蘭盆經講經文」, 「父母恩重經講經文」, 「十恩德」, 「十種緣」, 「孝順樂」, 「新集孝經十八章」, 「天下傳孝十二時」, 「天下行孝十二時」, 「故圓鑒大師二十四孝押座文」, 「佛母讚」, 「辭娘讚」, 「辭阿娘讚文」, 「搜神記」, 「孝子傳」 등이 새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佛僧들은 이렇게 그들의 윤리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理論의 정립과 경전 편찬에 그치지 않고 文學이라는 도구를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돈황에서 이렇게 다수의 효도 경전과 효도 작품이 나오자 사람들은 종종 孝란 원래의 불교에는 없었거나 아니면 매우 취약한 윤리였는데, 중국에서 불교의 孝를 알리기 위해 만든 방편이었다고 유추하였다.<sup>1)</sup> 본 논문은 그러한 진

---

\* 전남 대학교 강사

1) Ch'en kenneth(K.S.), "Filial Piety in Chinese Buddhis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28, Massachusetts, 1968, pp.81~97. 朱恒夫, 『目連戲研究』, 南京大學出版社,

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식이 더해지지 않은 중국·인도 불전에 쓰여진 효와 관련된 자료들을 취합 정리한 후 나름대로의 견해를 펴려한 것이다. 그래서 疑經이나 중국 불승들의 효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배제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본 연구가 불교 효의 본 면모를 알아내고 진일보하여 불교 효에 원형을 둔 중국 문학 작품들의 배경 이해에 一助할 수 있기 바란다.

## II. 孝論

그레고리 쇼팽은(Gregory Schopen)은 기원전 2세기에서 4·5·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인도 아잔타(Ajantā), 산치(Sāncī), 마투라(Maathrá), 카로스티(Kharosthī) 등지와 스리랑카의 수많은 불교의 비문에 쓰여진 題記들을 조사했는데, 이 기록에는 자주 현재 부모 또는 망부모를 위해 석굴, 탑, 조각, 그림 등을 공양으로 바친다고 적혀 있다<sup>2)</sup>.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공양의 40퍼센트 이상이 비구나 비구승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출가를 한 승려들에 있어서도 부모를 향한 공경과 강한 추도심이 있었음을 가리켜 주는 물적 증거이다. 쇼팽의 경우는 비문을 통하여 효를 연구한 진귀한 연구 성과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인도 불교의 전체적 윤곽을 들어내기에는 단순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제 佛書에는 효가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먼저 중국에 소개된 최초의 불경으로 알려진 竺法蘭(1세기) 역, 『四十二章經』 쪽을 보면

부처가 말씀하셨다. 범인 백 명에게 밥을 줌은 한 선한 사람에게 밥 주는 것만 못하고, 선한 사람 천명에게 밥을 줌은 오계를 지키는 한 사람

1993, pp.164~177 등이 그랬다.

2) "Filial piety and the monk in the practice of indian buddhism: A question of sinicization viewed from the other side", *T'ong pao*(통보) 70, 1984, pp.110~126.

에게 밥 주는 것만 못하고, 오계를 지키는 만 명에게 밥을 줌은 한 須陀洹에게 밥 주는 것만 못하고, 須陀洹 백만에게 밥을 줌은 한 斯陀舍에게 밥 주는 것만 못하고, 斯陀舍 천만에게 밥을 줌은 한 阿那舍에게 밥 주는 것만 못하고, 阿那舍 일억에게 밥을 줌은 한 阿羅漢에게 밥 주는 것만 못하고, 阿羅漢 십억에게 밥을 줌은 한 辟支佛에게 밥 주는 것만 못하고, 辟支佛 백 억에게 밥을 줌은 삼보의 가르침으로 현세의 양친을 구제함만 못하다(佛言. 飯凡人百, 不如飯一善人, 飯善人千, 不如飯持五戒者一人, 飯持五戒者萬人, 不如飯一須陀洹, 飯須陀洹百萬, 不如飯一斯陀舍, 飯斯陀舍千萬, 不如飯一阿那舍, 飯阿那舍一億, 不如飯一阿羅漢, 飯阿羅漢十億, 不如飯辟支佛一人, 飯辟支佛百億, 不如以三寶之教, 度其一世二親).<sup>3)</sup>

라고 되어 있다. 이 경에 의하면 부모 구제는 불교의 성지들을 공양하는 것보다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는 것이다. 다음 鳩摩羅什(350~409) 역 『梵網經』을 보자.

이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앉아서 더 위가 없는 깨달음을 이루셔서, 먼저 보살계를 만드시고 부모·스승·스님 삼보에게 효순하라 설하셨다. 효순은 지극한 도이므로 이렇게 효를 계로 만드셨다(爾時釋迦牟尼佛, 初坐菩提樹下, 成無上覺, 初結菩薩波羅提木叉, 孝順父母師僧三寶. 孝順至道之法, 孝名爲戒).<sup>4)</sup>

원래 삼보는 불·법·승인데, 이처럼 부모를 삼보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1세기의 인물, 迦葉摩騰(kāśyapa Mātanga)과 竺法護 역으로 알려진

3) 大 784, 권17, p.722下.

4) 大 1484, 권24, p.1004上.

『四十二章經』과 구마라습 역 『梵網經』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군록에 속하는 만큼 위 두 예문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sup>5)</sup>

한편 中村元은 그의 『儒家思想對佛典漢譯帶來的影響』이란 논문에서 팔리문 長部(Dīgha-nikāya),<sup>6)</sup> 『시갈로바다』(Sigalvāda: 시갈로에 대한 가르침)에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다섯 가지 의무를 나타낸 곳을 발췌하였다.<sup>7)</sup>

1. 부모는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는 부모를 모신다.
2. 그들을 위해 우리의 도리를 해야 한다.
3. 가계를 보존한다.
4. 재산을 승계 한다.
5. 적절한 시기에 조상에게 공양한다.<sup>8)</sup>

팔리본은 부모가 아이에 대해 준수해야 할 직무도 빼놓지 않았다.

1. 베풀어준다 2. 친절한 말을 한다 3.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일

5) 먼저 각 장의 많은 내용들이 阿含部 경전들에 보이는 『四十二章經』은 후한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경전들 중 흥미있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 같다(『四十二章經』에 대하여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 上海, 智識出版社, 권4, 1989, pp.3~8에 상론되어 있다). 그리고 구마라습 역 『梵網經』에 대해서 『衆律疑惑類』를 지은 法經이 劉宋과 齊(420~502) 사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옛 목록들이 그것을 疑品에 포함시켰다”(諸家舊錄多入疑品)고 했다(『中國佛教』, 권4, 1989, pp.206~209 참고).

6) 팔리 경전을 내용상의 經·律·論 삼장으로 분류하거나 형식상의 九分教로 분류하는 방법 이외 경의 길이에 의해 다섯 개의 모음집(部集, Nikāya) 곧 長部阿含·中部阿含·相應阿含·曾一阿含(Dīgha-Nikāya·Majjhima-Nikāya·Samyutta-Nikāya·Anguttara-Nikāya)과 小部阿含(Khuddaka-Nikāya)의 총 오부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팔리어 경전 체제에 대하여 김재성 편저, 『팔리어 사전』, 서울, 한국불교대학출판사, 1994, pp.15~52에 상술되어 있다.

7) 中村元, 『儒家思想對佛典漢譯帶來的影響』, 『세계종교연구』8, 1982, pp. 29~31.

8) 『Dīgha-nikāya』, 권3, p.189.

을 실천한다 4. 각종 일에 대해서 친절하게 협조한다.<sup>9)</sup>

安世高(2세기) 역, 『尸迦羅越六方禮經』(일명 『六方禮經』)쪽은 팔리본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식의 직무를 서술한다.

1. 부모 모시기를 생각하라
2. 일찍 일어나 노비에게 칙령을 내리고, 때에 맞추어 식사를 준비한다.
3.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다.
4. 부모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
5. 부모가 병이 들면 의사를 구해서 치료해야 한다.<sup>10)</sup>

이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태도 또한 잊지 않았다.

1.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게 하도록 생각해야 한다 2. 책들을 다 가르쳐야 한다 3. 경을 수지하고 계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4. 일찍 부인을 맞도록 해야 한다 5. 집안 소유물들을 주어야 한다.<sup>11)</sup>

팔리본과 『六方禮經』에 명시된 것과 같은 부자 상호간의 의무는 支法度(3세기) 역 『善生子經』<sup>12)</sup>과 398년, 瞿曇僧伽提婆(Gautama Samgahadeva) 역 『中阿含經』<sup>13)</sup>에 약간씩 상이하게 서술되었다.<sup>14)</sup>

9) 전게서, p.192.

10) 大 16, 권1, p.251中.

11) 大 16, 권1, p.251中.

12) 大 17, 권1, p.254上.

13) 大 26, 권1, p.641上.

14) 이 부분에 대해서 中村元, 『原始佛敎の生活倫理』, 東京, 春秋社, 1972, pp.145~147과 동저자 『儒家思想對佛典漢譯帶來的影響』, 상게서, pp.29~31을 참고할 것. 中村元은 인도의 불서에는 ‘어머니 아버지’ 순서로 적혀 있는데, 중국에서 ‘부모’의 순서

자식이 이와 같은 효도를 실천하면 어떠한 과보가 있는가. 瞿臣耶舍 Kālayasas(5세기) 역 『觀無量壽佛經』은 그러한 사람은 서방극락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한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윗사람을 받들고 자애로움으로 살생하지 않으며 열 가지 선업을 닦아야 한다(欲生彼國者, 當修三福. 一者孝養父母, 奉事師長, 慈心不殺, 修十善業).<sup>15)</sup>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4세기말에 활동했던 瞿曇僧伽提婆(Gautama Samghadeva) 역 『增一阿含經』과 2세기 중엽의 安世高 역 『父母恩難報經』은 그 지난함을 신화적으로 설명한다. 전자에 이르기:

이때 세존이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두 사람의 선에 대하여 보답할 수 없다. 두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니라. 만약 어떤 비구가 아버지를 오른 쪽 어깨에, 어머니를 왼쪽 어깨에 태운 채 천만세가 지나도록 식사와 침구 그리고 병났을 때 약을 드린다 하자. 게다가 어깨 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고 하여도 은혜를 갚을 수 없느니라. 비구여 마땅히 알라. 부모의 은혜는 깊어서 안고 기르며 수시로 보호하고 시절을 놓치지 않고 일월을 보게 한다. 이러한 일 때문에 은혜 갚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는 마땅히 때를 놓치지 말고 부모를 공양하고 항상 효순 하여야 한다(爾時世尊告諸比丘, 教二人作善不可得報恩. 云何爲二

로 바꾸어서 번역했으며 자주 인도 불서에 없는 ‘孝諸父母’라는 표현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15) 大 365, 권12, p.341下.

所謂父母也. 若復比丘有人以父著左肩上, 以母著右肩上, 至千萬世, 衣被飯食床蓐臥具病瘦醫藥. 卽於肩上放於屎溺, 猶不能得報恩. 比丘, 當知. 父母恩重抱之育之, 隨時將護不失時節得見日月. 以此方便, 知此恩難報. 是故諸比丘, 當供養父母, 常當孝順不失時節).<sup>16)</sup>

다음은 『父母恩難報經』의 一節을 읽어보자.

이 때 세존이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식에게 큰 이익을 준다. 젓 먹여 자라게 하고 언제나 돌보아서 四大<sup>17)</sup>가 이루어지게 한다. 오른 어깨에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원망하는 마음 없이 천 년 동안 등에 대소변을 보게 하여도 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기에는 부족하다(爾時世尊, 告諸比丘. 父母於子, 有大增益. 乳飽長養, 隨時長育, 四大得成. 右肩負父, 左肩負母, 經歷千年, 正使便利背上, 然無有怨心於父母, 此子猶不足報父母恩).<sup>18)</sup>

이어서 부처는 부모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인 그들의 종교적 귀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만약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어 평온하게 하고, 계를 받지 않았으면 계를 주어 평온하게 하고, 가르침을 듣지 않았으면 가르침을 주어 평온하게 하고, 탐욕스러우면 보시하게 하고 가르침을 즐길 것을 권하여 평온하게 하라. ... 모든 법은 매우 깊어서 과보로 나타나면 그 의미가 깊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행위에 밝게 통해서 성자

16) 大 125, 권2, p.601上.

17) 四大 : 地水火風으로, 곧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을 가리킨다.

18) 大 684, 권16, pp.778下~779上.

들을 믿게 한다. 여래와 성자들은 깊은 청정행을 한다. 곧고 비뚤어지지 않아서 항상 화합하며 법마다 성취하고 계를 성취하고 삼매를 성취하고 지혜를 성취하고 해탈을 성취하고 해탈하여 지혜 봄을 성취하므로 성자들이라 이른다. 四雙八輩<sup>19)</sup>는 모두 여래 성자인 것이다. 그들은 가장 존귀하니 마땅히 받들고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세간의 가장 뛰어난 福田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부모로 하여금 자비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비구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두 종류가 있다. 낳은 자식과 기른 자식을 일러서 비구에게 있어서 자식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는 낳은 자식의 (도리들) 배워서 입으로 법의 맛을 내어야 한다. 이처럼 모든 비구는 배워야 한다(若父母無信教令信, 獲安隱處, 無戒與戒教授, 獲安隱處, 不聞使聞教授, 獲安隱處, 慳貪教令好施, 勸樂教授, 獲安隱處. 無智慧教令點慧, 勸樂教授, 獲安隱處 … 諸法甚深, 現身獲果, 義味甚深. 如是智者, 名通此行. 教令信聖衆, 如來聖衆, 心清淨行, 直不曲常和合, 法法成就, 戒成就, 三昧成就, 智慧成就, 解脫成就, 解脫見慧成就. 所謂聖衆, 四雙八輩, 是謂如來聖衆, 最尊最貴, 當尊奉敬仰. 是世間無上福田. 如是諸子, 當教父母行慈. 諸比丘有二子. 所生 所養子, 是謂比丘有二子. 是故諸比丘, 當學所生子. 口出法味, 如是諸比丘, 當作是學).<sup>20)</sup>

無名氏 역 『孝子經』<sup>21)</sup>의 내용도 위에 인용한 『阿含經』, 『父母恩難報經』에 비해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19) 四向(須陀洹向, 斯陀含向, 阿那含向, 阿羅漢向)과 四果(須陀洹果, 斯陀含果, 阿那含果, 阿羅漢果)를 합한 것으로, 一向 一果가 더불어 각각 一雙을 이루므로 四雙八輩라고 한다.

20) 大 684, 권16, pp.778下~779上

21) 大 687, 권16, p.780中. 經題 아래 “失譯人名今附西晉錄 역자의 인명이 알려지지 않아 이제 서진 목록에 붙인다” 고 되어 있다.



부처가 모든 사문에게 물으셨다. 부모님이 자식을 배어 열 달을 임신하여 몸이 크게 병든다. 출산 일에 어머니는 위태롭고 아버지 두려워 하시는데, 그 정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낳은 후, 마른자리는 자식에게 주고 당신은 진자리에 눕는다. 정성이 지극하여 피가 우유 되고 어루만지고 목욕시킨다.衣食을 마련해 주고 가르치며 스승과 친구에게 예를 갖추고 임금과 웃어른에게 공양을 받친다. 자식의 얼굴이 기뻐하면 부모 또한 그러하며, 자식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면 부모 마음 또한 초조하다. 자식이 밖에 나갔을 때 염려하고 들어왔을 때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가 선하지 않으면 슬프고 두려워한다. 부모의 은혜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는가(佛問諸沙門. 親之生子, 懷之十月, 身爲重病. 臨生之日, 母爲父怖, 其情難言. 其生之後, 推燥臥濕. 精誠之至, 血化爲乳, 摩拭澡浴. 衣食教誨, 禮賂師友, 捧供君長. 子顏和悅, 親亦欣豫, 子說慘感, 親心焦枯. 出門愛念, 入則存之. 心懷惕惕, 懼其不善. 親恩若此, 何以報之).

이상의 인용문들은 중국본 『增一阿含經』, 『父母恩難報經』, 『孝子經』에서 초록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움과 함께 인도의 문헌 가운데서 효에 할애된 장문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산스크리트 본 『매뜨라간야까 Maitrakanyaka』와 팔리 본 『밋따빈다까Mittavindaka』라는 인도의 대표적인 두 언어로 된 본생담이 그것이다. 마이뜨라간야까와 밋따빈다까는 동일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본서에서는 산스크리트 발음으로 부르기로 한다.<sup>22)</sup>

22) 주지하듯이 원래 불서의 편찬은 두 언어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북전의 산스크리트이고 다른 것은 남전의 팔리어이다. 이 두 가지 편찬을 상호 대조하면 어떤 것은 그 원천이 상호 동일하여 원형은 같지만 줄거리는 다르게 꾸며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나가 다른 것을 베껴 쓰기도 하였다. 베껴 쓴 경우 그 정확도가 높은 경우는 드물고, 상이한 내용이 빈번하게 들어 있다. 두 편찬의 비교에 대하여, 바르텔레미 생틸레르(Barthélemy Saint-Hilaire), “Du bouddhisme et de sa littérature à Ceylan et en Birmanie”, *Journal des savants*, 파리, 1866, p.45을 볼 것.

인도에는 『아바다나avadâna』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불교 설화집들이 있다. 그 중 산스크리트의 『아바다나.자따까Avadâna-jâtaka』와 『아바다나.갈팔라따Avadâna-kalpalatâ』에 마이프라칸야까 고사가 보이며,<sup>23)</sup> 빨리본 밋파빈다까는 부처의 오백 전생담이 수록된 『자따까jâtaka』 중 439에 그 원본이, 그리고 82, 104, 369에 축약된 고사가 있다. 이 모든 텍스트들은 19세기 중엽 인도 불교학의 개척자들 중 하나였던 레옹 페르에 의하여 상세하게 연구되었다.<sup>24)</sup>

텍스트에 따라서 이야기의 세부 요소들은 다르지만, 평소에는 어머니에게 효자인 마이프라칸야까가 단 한 번 그녀를 학대한 나머지 지옥에 떨어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전체 줄거리는 동일하다. 그런데 『아바다나.자따까』의 『마이프라칸야까』가 특별히 주의를 끄는 所以는 이것이 ‘本生’이라는 장르에 속하면서도 그 서두와 말미에 경의 형식을 빌어 부처가 직접 부모의 은혜와 효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있다.<sup>25)</sup> 그렇다면 본 연구를 위한 편의상 이것을 서두, 본생, 말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먼저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운·산문 교직의 계송(gâthâ)이 있다.

세존(Bhagavat)이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여, 브라흐마(Brahma)<sup>26)</sup>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으로 존경 · 숭배되며 완전한 만

23) 아바다나는 처음에는 불승과 신심이 돈독한 신자들의 전생 이야기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점차 부처의 本生談을 포함하기도 하고 律藏 내에서 어떠한 사실들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야기인 ‘譬喩’로서도 사용되면서 아바다나의 의미는 확대되었고, 마침내 고대인도 문학의 설화들을 가리키는 광의적인 용어가 되었다. 아바다나에 대하여 이와또모 유타카(岩本裕), 『佛敎説話研究序説』, 동경, 法藏館, 1967, pp.26~43을 참조

24) Léon Feer, “Maitrakanyaka-Mittavindaka”, *Journal Asiatique* 7, 파리, 1878, pp.360~443.

25) 본생과 경의 결합은 남방불교 문학에 보인다. 레옹 페르, 전게서, p.390.

26) 인도의 제신 중 우주 창조주 신인.

족을 주는 공양을 받는 그러한 가족과 함께 한다. 왜 그러한가? 법에 의하면 가정의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진정한 브라흐마와 같기 때문이다.

스승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으로 존경·숭배되며 완전한 만족을 주는 공양을 받는 그러한 가족과 함께 한다. 왜 그러한가? 법에 의하면 가정의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진정한 스승과 같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으로 존경·숭배되며 완전한 만족을 주는 공양을 받는 그러한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왜 그러한가? 법에 의하면 가정의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물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불의 신(Agni 아그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으로 존경·숭배되며 완전한 만족을 주는 공양을 받는 그러한 가족과 함께 한다. 왜 그러한가? 법에 의하면 가정의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진정한 불의 신이 되기 때문이다.

신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으로 존경·숭배되며 완전한 만족을 주는 공양을 받는 그러한 가족과 함께 한다. 왜 그러한가? 법에 의하면 가정의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진정한 신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존은 말하셨다. 이렇게 말한 후 스승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브라마라네,  
 그들은 또한 첫 번째 스승이네,  
 그들은 제물을 받을 만 한 존재들이네,  
 그들은 또한 그(자식)에 있어서 진정한 신이라네.

智者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네.

향수, 목욕물, 洗足할 물을 바침으로써.  
 혹은 그들에게 음식, 음료,  
 의복, 우유, 침대와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돌보아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지는  
 이 세상의 비난이 없고,  
 사후 天界(Svarga 스바르가)에서 행복하다네.

세존이 이 ‘經(sūtra)’을 설하자 비구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의 의심이  
 생김을 알고 모든 의심들을 풀어 주는 부처님께 물었다. “오 존자이시  
 여 세존께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순종을 그토록 찬양하심은 훌륭한  
 일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신들과 동일시하는 생각은 불교 이전 고대 인도로부터  
 있어 왔다. 『우파니샤드』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여신처럼 존경하라. 아버지  
 를 신처럼 존경하라”고 되어 있다. 불교는 이러한 개념을 나눠 갖은 것으로  
 예를 들어 『안굿따라니까야 Anguttara-Nikāya』(增支部)에서 “어머니와 아  
 버지는 브라흐마와 스승들처럼 존중된다”한 것을 읽을 수 있다.<sup>27)</sup>

『아바다나자따까』의 『마이뜨라간야까』의 두 번째 부분에서 부처 자신이  
 과거 전생에 마이뜨라간야까라는 인물이었을 때 겪었던 본생담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는데, 이것은 편의상 아래 p.341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  
 생담에 이어 부처는 텍스트 말미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경의 형식으로 附記한다.

27)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原始佛教の生活倫理』, 東京, 春秋社, 1972, p.141에 이  
 러한 부모존중에 관한 인도 전통이 설명되었다.

따라서 비구들이여 다음과 같이 알라. 우리는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저속한 마이뜨라간야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고 신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수많은 복리를 취할 것이다. 왜 그러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고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식으로 하여금 마시고 먹게 하고 젖을 주며 잠부드 비파[Jambudvīpa(인도)]의 풍요함을 알게 한다. 만약 어떤 자식이 어머니를 한 쪽 어깨에, 아버지를 다른 쪽에 100년 동안 올려 놓는다고 하자. 또는 그들로 하여금 남쪽 지방을 지배하는 절대권력을 갖게 한다거나, 진주, 청금석, 금 소라, 돈, 에페랄드, 산호 등이 넘치도록 하는 등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혜택과 안위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드린다 하여도, 신용이 없는 부모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종교를 갖게 하여 안내하고 믿음이 굳게 하거나, 도덕이 없고 탐욕스럽거나 또는 지식이 결핍된 부모를 도덕, 자유, 관용, 지식의 완성으로 인도하고 종교를 갖게 해 안내하고 믿음이 굳게 하는 것 등만 못하다. 그렇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장 큰 혜택과 안위를 주는 자이다.

이렇게 세존이 말하자, 기쁜 비구들은 세존의 설법을 찬양하였다.

이처럼 진정한 우화에 속하는 『마이뜨라간야가』에는 부모라는 가족의 구성원을 브라흐마, 신들, 스승 등 신성한 존재에 비유하고, 자식들에 대한 은혜와 그 은혜를 갚는 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게 짜여져 있다. 필자에게는 그 서술방식에 있어서 이 인도 본이 중국 唐朝에 효를 선전하기 위하여 허구로 만든 『父母恩重經』에 비하여 품격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父母恩重經』에는 일생 생활에 보이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비근한 비유와 통속적인 언어에 의해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다.<sup>28)</sup>

28) 『父母恩重經』에 관하여 小川貫一, 「父母恩重經」, 『敦煌と中國佛教(講座敦煌)』, 大東出版社, 1984, pp.207~222, 新井慧譽, 「敦煌本父母恩重經校異」, 『二松舎大學論』

『大乘本生心地觀經』은 부모의 은혜를 십 개 항목으로 더욱 체계화하였다. 般若(744~810경, 원명: Prājna) 譯의 의 이 경 「報恩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가지 큰 은덕을 가리켜 一. 父母恩, 二. 衆生恩, 三. 國王恩, 四. 三寶恩이라 하고, 어머니란 존재에게는 다음과 같은 十德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大地라 한다. 모태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둘째 能生이라 한다. 모든 고통을 체험하고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能正이라 한다. 항상 모친의 손으로 五根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넷째 養育이라 한다. 四時를 따라 잘 기르기 때문이다. 다섯째 智者라 한다. 능히 方便으로써 지혜가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莊嚴이라 한다. 아름다운 구슬로 엄하게 꾸며 주기 때문이다. 일곱째 安隱이라 한다. 어머니 가슴으로 안아서 쉬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덟째 教授라 한다. 선하고 교묘한 방편으로 자식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教誡라 한다. 좋은 말로 모든 악을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 열째 興業이라 한다. 능히 家業을 자식이 잇게 하기 때문이다(一名大地. 於母胎中爲所依故. 二名能生. 經歷衆苦而能生故. 三名能正. 恒以母手理五根故. 四名養育. 隨四時宜能長育故. 五名智者. 能以方便生智慧故. 六名莊嚴. 以妙瓔珞而嚴飾故. 七名安隱. 以母懷抱爲止息故. 八名教授. 善巧方便導引子故. 九名教誡. 以善言辭離衆惡故. 十名興業. 能以家業咐囑子故).<sup>29)</sup>

唐朝 중국 불교 내에서는 이 十德을 모방한 ‘十恩’을 만들어 위에 언급한 『父母恩重經』의 핵심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歌辭 문학화하여 널리 노래로도 부를 수 있게 하였다.<sup>30)</sup> 그것들은 ①임신하여 수호하는 은혜(懷胎守護

集』, 東京, 1979, pp.77~110 참조.

29) 大, 159, 권 3, p.297中.

30) 돈황에서 그 가사들의 원형으로 보이는 「十恩德」(s.289, s.4438, s.5564, p.3411, p.4700, 북경周97 등)과 그 아류들인 「孝順樂」(p.2843), 「父母恩重讚」(s.126)이 발견되었다.

②출산에 임하여 고통을 받는 은혜(臨產受苦恩), ③자식을 낳으면 근심을 잊는 은혜(生子忘憂恩), ④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는 은혜(咽苦吐甘恩), ⑤젖먹이고 양육하는 은혜(乳飽養育恩), ⑥진자리는 피하고 마른자리로 가는 은혜(廻乾就濕恩),<sup>31)</sup> ⑦더러운 것을 세탁하는 은혜(洗濯不淨恩), ⑧악업을 짓는 은혜(造作惡業恩), ⑨원행한 자식을 생각하는 은혜(遠行憶念恩), ⑩영원히 사랑하는 은혜(究竟憐憫恩) 등이다.

### III. 효도 고사

#### 1. 석가모니

##### 1) 정반왕

지금까지의 글은 불서에 보이는 효에 대한 論議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이제는 부처와 그 제자들의 효행담을 찾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자. 석가족의 세자였던 싯타르타는 출가 6년의 고행 결과 부처가 된 후 아버지 정반

---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는 南曲 중의 「孝順歌」와 清代 유행의 「十月懷胎」 그리고 劉復과 李家瑞 편, 『中國俗曲總目考』(北平, 國立中央研究院, 1932)에 채록된 「十勸君」, 「十重恩」 등이 있다. 澤田瑞穂는 「十恩德と十報恩」, 『佛敎と中國文學』, 東京, 1975, p.69에서 십은덕 계통 가사들이 주로 葬式의 佛事에서 승려가 불렀던 喪葬文學의 성격을 논하였다.

31) 『後漢書』 권54, 「楊震傳」에 의하면 楊震(?~124)은 安帝(107~125)에게 安帝의 乳母인 王聖을 물리칠 것을 호소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다음은 그 일부분이다. “어머니 王聖은 출신은 미천하되 千載의 기회를 만나서 聖躬을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마른자리는 사양하고 진자리에 거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으나, 前後 베풀어 준 상이 노고를 지나치게 보답하여, 만족하는 마음이 없고 끝을 모르며 밖으로 친족과 결탁하여 천하를 어지럽히고 깨끗한 조정을 욕보이며 日月을 더럽힙니다”. 阿母王聖出自賤微, 得遭千載, 奉養聖躬. 雖有推燥居溼之謹, 前後賞惠, 過報勞苦, 而無厭之心, 不知紀極, 外交屬託, 擾亂天下, 損辱清朝, 塵點日月”(『後漢書』, 북경, 중화서국, 1965, 권7, p.1761) 그러므로 十恩 중 ‘廻乾就濕’과 같은 표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ddhodana)왕을 찾아 뵙고 正法을 설하므로써 그를 불도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것은 竺法護(?~310 이후) 역 『普曜經』,<sup>32)</sup> 沮渠京聲(5세기) 역 『淨飯王般涅槃經』,<sup>33)</sup> 디바카라Divākara(613~688) 역 『方廣大莊嚴經』<sup>34)</sup> 등에 나오는 이야기다.

## 2) 마야부인

曇曜(5세기) 역 『摩訶摩耶經』<sup>35)</sup>은 『佛昇忉利天爲母說法經』이라고도 하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석가 어머니가 나온다.

생후 칠일만에 사별한 모친 마야(Māyā) 부인에게 최상승의 진리를 설할 목적으로 석가는 그녀의 거주지인 도리천(Trāyastriṃsa)으로 상승한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석달 만에 初果의 경지에 이르자 석가는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곧 열반에 들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인은 하늘로부터 天女들을 인솔하고 아들의 시체가 든 金棺이 안치된 장례장으로 내려와 통곡한다. 그러자 석가는 관에서 나와 삶과 죽음이 모두 멸한 적멸의 상태가 최상의 즐거움(生滅既滅已, 寂滅爲最樂)이라는 계송을 지어 불러 그녀를 위안한 후 다시 관으로 들어간다.

중국불교 내에서는 이 『摩訶摩耶經』에 나오는 부처 열반 후의 어머니와의 이야기 부분만을 절취해 내용을 줄이고 간결하게 플롯을 짜서 『佛母經』<sup>36)</sup>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佛母讚』으로 재 개작, 노래로도 부를 수 있게 하였다. 偽經群에 드는 『佛母經』과 『佛母讚』은 산실되어 대장경에 실려 있지 않았던 것인데, 다행히 돈황 藏經洞에 보존되어 있어서 빛을 보게 되었다.<sup>37)</sup>

32) 大 186, 권3.

33) 大 512, 권14.

34) 大 187, 권3.

35) 大 383, 권12, pp.1005~1014.

36) 大 2919, 권85, p.1463.



3) 大愛道

생모 없이 자란 석가의 효는 어머니 대신 그를 맡아서 길러 준 이모 大愛道(Mahâprajâpatî)를 향한 추도심에서도 나타난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 손수 관을 들고 가려 한다. 이 때 그의 비통한 심정이 白法祖(3세기~4세기) 역 『大愛道般泥洹經』,<sup>38)</sup> 慧簡(5세기) 역 『佛母般泥洹經』,<sup>39)</sup> 고타마 삼가드바Gautama Samghadeva(4세기) 역 『增一阿含經』의 『大愛道涅槃品』<sup>40)</sup> 등을 통해 전해 내려온다.

2. 本生

본생은 석가모니 부처의 前生을 의미하고, 본생담은 그 전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리킨다. 이 ‘本生談’은 원래 인도의 수많은 고대 신화들 중 불교 내에서 적당한 것들을 선별, 재구성하여 만들어 낸 『Jâtaka』<sup>41)</sup> 라는 책

37) 『佛母經』과 『佛母讚』 두 돈황본 작품에 대하여 가와사키 미찌코(川崎ミチコ)가 『佛母經について』, 『東洋大學文學部紀要』 40, 1988, pp.167~193과 『佛母讚管見』, 『東洋大學文學部紀要』 41, 1988, pp.119~135에서 좋은 연구를 하였다. 필자도 그녀가 남긴 미진한 부분을 Jang Chun-seok, *Le concept bouddhique de p  t   filiale dans la litt  rature chinoise: des oeuvres inspir  es des j  taka et des s  tra*, 파리7대학 학위논문, 1997, pp.210~238에서 보충하였다. 특히 불모찬에 있어서 미찌코는 s.5466, s.5473, s.5581, s.5689, s.5975, p.2066, p.3645, p.3892, p.4597, 北生 25, 北奈 74 중 가장 원본인 p.4597를 참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s.5466, s.5975, p.2066, 北奈 46은 다른 것들에는 없는 和聲을 달고 있는 데도 이 점을 간과해 버렸다. 『佛母讚』에 대해서 줄고 『敦煌文學 中の 母性愛』, 『中國人文科學』 17, 1998, pp.158~164을 참조하기 바람.

38) 大, 144, 권2, pp.867~869.

39) 大, 145, 권2, pp.869~870.

40) 大, 125, 권2.

41) 자따까는 책이름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책에 나오는 각 故事를 이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사마 본생』, 『수자타 본생』을 『Sy  ma-j  taka』, 『Suj  ta-j  taka』라고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자따까는 佛典의 문체를 나누는 十二分教 中の 하나가 되는데, 이 경

에 나오는 고사들인데, 자따까는 ‘출생들’이란 뜻이다.<sup>42)</sup>

1) 『마이뜨라칸야까』

『아바다나-자따까』에 수록된 이 본생담에 대해서 이미 위 pp.328~329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바로 그 내용만 보면 되겠다.

왕사성에 한 巨商이 결혼하여 마이뜨라칸야까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장성할 때쯤 장사하러 나갔다가 바다에서 죽게 되었다. 효자인 자식은 어느 날 아버지의 직업을 이으려고 바다로 나가려다가 극구 만류하는 어머니의 머리를 발로 차고 뛰쳐나갔다. 그러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는 파손되고 닢뎀지에 의지해 어느 황폐한 육지에 도달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어느 날 쇠로 만들어진 도시에 들어갔다가 그만 머리에 불타는 쇠바퀴를 쓰게 되었다. 마이뜨라칸야까는 큰 통증을 느꼈지만 모든 중생들을 위해 바퀴를 쓰고 있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러한 서원이 끝나자 바퀴는 사라지고 주인공은 죽어서 兜率天의 몸을 받았다.

---

우에 이것은 장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각각 韻·散文 결합으로 된 총 오백 사십 칠개의 본생고사가 팔리어 본에 의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이것들에 의하면 석가모니는 수많은 과거의 생애 동물, 인간, 神 등의 모습으로 태어나 감동적인 보살(bodhisattva)행을 하였기에 윤회의 사슬과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팔리어 본은 原本이 아니다. 스리랑카에서 산 스크리트 본을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오세기에 사라지고 무명의 스리랑카 사람이 다시 팔리어로 再翻譯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팔리어 본은 V. Fausböll, *The jātaka*, 6권, 런던, Trubner & co., 1877~1897 참조. 英文번역은 E. B. Cowell, *The jātaka*, 6권+index, 런던, Luzac & co., 1985~1913을 볼 것.

- 42) 이러한 고사들은 불교 전도의 중요한 도구였다. 원래 이것들은 청중들에게 들려주었던 講說用 이야기였지 체계가 잡힌 문학 작품이 아니었는데, 어떤 作者들이 가장 유포되고 흥미 있는 것들을 선별, 재구성하게 되었다. 자따까에 관하여 E. Chavannes, *Cinq cents contes et apologues extraits du Tripitaka chinois*, 파리, Adrien-Maison neuve, 1910, 권1, pp.I-XX 참조

본생 교사는 거의 주인공 선행을 중심으로 짜여졌는데, 이 경우에는 효자인 마이뜨라간야가가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단 한 번 어머니를 구타한 죄로 큰 대가를 치른다는 다소 일반 본생담의 플롯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효와 불효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모순적 상황을 통해 주인공이 수난을 겪고 다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설정한 것이다. 472년 吉迦夜 역 『雜寶藏經』에 실린 『慈童女緣』<sup>43)</sup>과 康僧會(3세기 중엽) 역 『彌蘭經』<sup>44)</sup>은 마이뜨라간야가와 줄거리가 동일한데, 이 중국 본들에는 『아바다나~자따까』에 있는 父母之恩은 없이 본생담 부분만 있으며 『아바다나~자따까』에 비해 더 간략하게 짜여져 있다. 그리고 『彌蘭經』과 『慈童女緣』을 비교하면 상호 구성이 많이 다른데, 이로 보면 吉迦夜와 康僧會는 中譯을 하면서 각기 다른 인도 본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吉迦夜의 『雜寶藏經』을 읽는 도중 마이뜨라간야가와 유사한 우화가 이 경의 『不孝子受苦報緣』 편에 수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옛날 迦默國, 鳩陀扇(Kutaçanda)촌에 한 노모가 있어서 오직 자식 하나를 두었는데, 그 자식은 방종하여 인·효를 닦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화를 내어 손을 들어 어머니를 한 번 때리더니, 그날로 집을 나갔다가 도적을 만나 어깨 하나를 잘렸다. 불효한 죄로 바로 과보를 받는 고통이 이와 같다. 후에 헤아릴 수 없는 지옥고를 받았다(昔迦默國, 鳩陀扇村中, 有一老母, 唯有一子, 其子勃逆, 不修仁孝. 以瞋母故, 舉手向母, 適打一下, 卽日出行, 遇逢於賊, 斬其一臂, 不孝之罪, 尋則現報, 苦痛如是. 後地獄苦, 不可稱計).<sup>45)</sup>

43) 大 203, 권4, pp.450下~451下.

44) 大 152, 권3, pp.21上~下.

45) 大, 203, 권4, p.492下.

## 2) 수자따

慧覺에 의해 472년 번역된 『賢愚經』 「須闍提Sujāta」品<sup>46)</sup>은 신하의 반역으로 궁박으로 피난한 왕과 왕비를 기아로부터 살려내기 위해 제 살을 죄다 칼로 도려내어 음식으로 바치는 감동적인 須闍提 왕자의 효행 신화이다.<sup>47)</sup> 결국 제척천이 그의 원래 몸을 되살려 주고 아버지는 다시 왕위를 회복한다. 이 고사는 중국에서 편찬된 『報恩奉盆經』(일명 報恩經)<sup>48)</sup>의 「序文」과 「孝養品」으로 개편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3) 샤마

이 고사는 인도와 중국의 여러 자료에 실려져 있다. 먼저 중국 본의 경우, 삼국시대(220~265) 康僧會 역 『六度集經』, 聖堅(IV세기)역 『佛說睺子經』,<sup>49)</sup> 그리고 無名씨 역 『佛說菩薩睺子經』<sup>50)</sup>에 나온다. 이외에 『雜寶藏經』에 수록된 「王以肉濟父母緣」<sup>51)</sup>에 샤마 설화가 언급되었고, 이 본생담의 축약된 내용이 道世(683 卒)와 寶唱(V세기末~VI세기初)에 의해서 각각 편찬된 『法苑珠林』<sup>52)</sup>과 『經律異相』<sup>53)</sup>에도 나와 있다.<sup>54)</sup>

46) 大 202, 권4, pp.356上~376中.

47) 이것은 중국에서 제작된 『報恩經』 「序品」과 「孝養品」(大 156, 권3, pp. 127中~130中)으로 각색되어 더 널리 알려졌다.

48) 大, 156, 권3, pp.127中~130中.

49) 大 175, 권3, p.438.

50) 大 174, 권3, pp.436中~438上.

51) 大 203, 권4, pp.448中~449上.

52) 大 2122, 권53, p.656.

53) 大 2121, 권53, pp.51中~52下.

54) 『本生』은 중국에 직접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인도 불교의 각 종파에서 부분적으로 경전에 삽입하였으므로 故事들의 대부분은 불교의 중국 전래 이후 中譯된 불경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故事들은 특히 『六度集經』(康僧會 譯, 大 152, 권3), 『舊雜譬喻經』(康僧會 譯, 大 206, 권4), 『雜譬喻經』(鳩摩羅什 譯, 大 208, 권4), 『百喻經』(求那毘地 譯, 大 209, 권4), 『雜寶藏經』(吉迦夜와 曇曜 譯, 大 203, 권4), 『生

산중에서 수도에 전념하는 부모를 봉양하는 보살의 화신인 사마는 샘물을 길으러 갈 때마다 사슴들이 놀라지 않도록 사슴 가족을 어깨위로 덮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사냥 나온 迦夷(Kāśi)國 왕의 화살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감동한 帝釋天(Indra)은 신들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상처에 약을 발라 주니 사마는 還生하고 부모 또한 눈이 보이게 되었다.

인도본에 있어서는, 팔리본 본생담에 수록된 것은 물론,<sup>55)</sup> 산스크리트 본인 『마하바스투』(Mahāvastu)<sup>56)</sup>에도 실려 있으며, 인도의 大敍事詩 『라마야나』(Ramayana)에도 유사한 것이 있다. 쏘6권으로 이루어진 『라마야나』의 제2권 「Ayodhya」편 중 57章과 58章에 은자 생활을 하는 늙은 부부의 아들이 왕의 신부인 Dasaratha의 화살에 의해 죽는 장면이 나온다.<sup>57)</sup> 그러나 여기에는 자식이 환생하고 부모의 눈이 열리게 되는 기적 부분은 없다. 한편 『라마야나』의 저자인 발미끼(Vālmīki)는 民間文學에 원형을 두고 작품을 쓰기도 하였는데, 올덴베르그(Oldenberg)는 사마 본생과 『라마야나』에 보이는 이야기의 상호 문체 비교를 통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더 古代에 속한다고 말했다.<sup>58)</sup>

---

經』(竺法護, 大 154, 권3), 『經律異相』(寶唱 譯, 大 2121, 권53), 『大智度論』(鳩摩羅什 譯, 大 1509, 권25) 등에 많이 나와 있다. 샤반(Chavannes)은 이 경전 들에서 오백 개의 본생설화들을 발췌하여 번역하고 註를 달아 4권의 책으로 내었다. E. Chavanne, 상계서.

55) 사마 설화의 팔리어 본은 Fausböhl, 상계서, pp.68~95 참조. 英文 번역은 E.B. Cowell, 상계서, 권6, pp.38~52 참조.

56) Mahāvastu: 석가모니의 전생, 출생에서 열반까지의 현생 그리고 설교자와 종교의 창시자로서의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J.J. Jones, *The Mahāvastu*, London, Luzac & co., 1949, 권1, pp.IX-XX 참조.

57) 英文 번역된 『라마야나』는 R.P. Goldman, *The Ramayana of Vālmīki*, Princeton, Princeton U.P., 1984, 권2, pp.204~211.

58) H. Oldenberg, “Jātakastudien”, *Nachrichten von der kgl. Gesel Ischaft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Philologisch-historische Klasse, 1918, p.456.

## 2. 불제자

석가모니의 제자들 중에는 지극한 효성으로 이름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효행은 모두 신화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데, 그들 스승의 효보다도 오히려 더 문학적이며 감동적이다. 그것들을 제 불서에서 찾아 여기 그 골간들을 적어 보겠다.<sup>59)</sup>

### 1) 목련

#### (1) 『盂蘭盆經』<sup>60)</sup>

竺法護(265~313頃) 역으로 되어 있는 목련(Maudgalyâyana)<sup>61)</sup>의 지옥구모는 불제자들의 효행담 중 중국, 한국, 일본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다.

六通의神通력을 얻게 된 목련은 부모의 乳哺之恩을 갚고자 하여天眼으로 세계를 살펴보니, 죽은 모친이 餓鬼의 형상으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지만 입에 대기도 전에 음식은 타서 숫으로 변하였다. 자력만으로는 모친을 구제할 수 없게 되자 목련은 부처에게 그 방도를 물었다. 부처는 盂蘭盆齋를 지내면 그 공양의 공덕이 회향되어 모친은 지옥고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목련은 칠월 십오일에 盂蘭盆齋를 크게 베풀어 마침내 모친을 구하였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報恩奉盆經』(일명 『報像功德經』)<sup>62)</sup>에도

59) 아래에 소개하는 고사들 중 사리불, 우다라, 지장 보살 편은 이미 「목련설화의 지옥구모 연원」이란 題下에 『한국중국소설학회』 10, 1999, pp. 161~174에 실었다. 이것들의 원문을 보고자 하면 이 학회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60) 大 685, 권16, p.779.

61)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는 Moggallāna이다. 이것은 중국에 目連 또는 目乾連으로 음譯되었는데, 존경하는 의미로서 Mahāmaudgalyâyana(大目連 또는 大目乾連)라 하기도 한다.

실려 있다. 망자에게 공양할 요량으로 그릇에 음식을 담은 盂蘭盆(avalambana)은 중국의 시아귀 풍속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원래 인도 후기 불교까지 전해 내려오던 제사 문화의 하나로 프르쥘리츠키(Przyluski)에 의해 밝혀졌었다. 그가 연구한 팰리 본 칸드주르(Kandjour)의 텍스트들에 의하면 죽은 자에게는 두 부류가 있는 것으로, 한 종류는 이곳 저곳을 방황하는 魂인 餓鬼(pretā)로서 이 경우에는 땅위에 음식을 놓고 공양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방랑자는 모든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인 陰界에 거주하는 망혼에게는 물줄기가 음식을 운반해 주어야 했다. 이것은 흐르는 물이 亡者의 세계에까지 음식을 옮겨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음식을 땅위나 흐르는 물에 부었던 전통은 후기 인도불교까지 계승되었다.<sup>63)</sup>

## (2) 『디바-아바다나』

불교 신화들이 수록된 『디바아바다나』(Divya-avadāna)에는 「푸르나」(Pūrṇa) 편이 있는데, 이것은 푸르나란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필자는 뷔르누프가 쓴 최초의 『印度佛敎史入門書』에서 완역된 「푸르나」를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목련의 孝行을 읽게 되었다.<sup>64)</sup>

어느 날 목련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에 대해 숙고해 보니 진정한 효도란 부모를 신앙과 도덕, 자유와 지식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에 재생하였는지 살펴보니 그녀는 환상

62) “東晉(317~420)의 무명씨 역”(闕譯附東晉錄)으로 되어 있다. 大 686, 권16, p.780上

63) J. Przyluski, “Les rites d’avalambana”, *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벨기에,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1982, 권1, pp.222~225 참조

64) M. E. Burnouf, *Introduction à l’histoire du bouddhisme indien*, 파리, Maisonneuve, 1876. 푸르나에 대한 연구는 岩本裕(Iwamoto Yutaka), 『佛敎說話研究序說』, 東京, 法藏館, 1967, p.135, p.139, p.143, p.148, p.150, p.152 참조

(Marīṭhika)계에 있었다. 그녀를 불법에 귀의시킬 목적으로 목련은 세존을 모시고 칠일만에 환상계에 도착하였다. 둘은 그 곳에서 목련 모친인 바드라 간야(Bhadra Kanyā)를 만나, 세존이 四聖諦의 법문을 들려주자 그녀는 곧 지었던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苦海의 피안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개심한 바드라 간야는 두 성자에게 공양을 바쳤다. 세존은 다른 법을 설해 그녀를 완전히 구제한 후 지상에서의 사명을 수행키 위해 목련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 2) 사리불

팔리어 불경들을 번역·연구하는 영국의 ‘The Pali Text Society’에서 1894년 『빠따밧투Petavatthu 또는 Peta-vatthu』란 책을 출판하였다. 이 題名은 ‘餓鬼事’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귀에 관한 많은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짜리뿌따테랏싸 마뚜빠따밧투 Sāriputtatherassa Mātupetavatthu」(長老 舍利佛의 모친 故事)와 「웃따라마뚜Uttaramātu」(優多羅 故事)는 각각 부처의 제자인 舍利佛(짜리뿌뜨라Sāriputra)<sup>65</sup>과 優多羅(웃따라Uttara)가 모친을 지옥에서 구제하는 ‘지옥구모’ 고사인데,<sup>66</sup> 이 텍스트는 현존하는 원시 불교서 가운데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팔리어로 된 것인 만큼 그 연구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옛날 베나레스(Bénarès)城 중에 사람들에게 의식과 잘 곳을 마련해 주는 선하고 관대한 브라만(brahman)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遠行에 나

65) 석가의 십대제자 중 사리불은 ‘智慧第一’이라고 한다.

66) 『Peta-vatthu』는 E. Hardy에 의해 여섯 가지의 고대 사본을 참고, 영어식 발음으로 전사되었다(런던, The Pali Text Society, 1894). 「Sāriputtatherassa Mātupetavatthu」와 「Uttaramātu」는 각각 이 책의 pp.78~82와 pp.140~143에 보인다. 그러나 이것의 영문 번역은 H. S. Gehman, 『The miner anthologies of the pali canon』, 런던, The Pali Text Society, 1974, 권4를 기다려야 하였다. 사리불과 우다라의 이야기는 각각 이 책 pp.29~32과 pp.54~56에 있다.



서기 전 부인에게 집에 찾아오는 빈민들을 잘 대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녀는 약속은 하였지만 남편의 부재중에 승려에 대한 愛德을 버렸다. 더욱이 그녀는 집을 방문하는 나그네들에게 심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부인은 이 악업 때문에 죽어서 餓鬼(pretā)의 몸을 받아 끝없는 고통에 괴로워 하다가 다섯 번째 전생의 아들이었던 사리불을 찾았다. 후자는 물었다. “얼마나 역겨운 벌거숭이인가! 당신의 혈맥은 그토록 돌출했구나! 당신은 말라서 늑골이 보인다. 여기에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아귀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전생 어머니였다. 나는 아귀의 몸으로 태어나 굶주림과 슬픔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에게 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날 사리불은 라자그라하(Rājagṛaha) 城에 사는 빔비사라(Bimbisāra)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권하기를 평야에 네 개의 오두막집을 지어 그의 어머니 이름으로 부처가 스승인 諸僧에게 공양하라고 했다. 사리불은 거기에 음식과 음료를 더해 그대로 실행하였다. 이러한 효행의 덕으로 그의 어머니는 여신(devī)의 세계에 재생할 수 있었다. 그녀가 어느 날 마하목갈라나(Mahāmoggallāna 즉 大目乾連)의 곁에 다가갔다. 후자가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면서 그녀가 어떤 善業을 지었는지 물으니, 사리불의 모친은 이 大聖者에게 아들의 孝行을 설명하였다.

### 3) 우다라

위의 사리불 고사와 유사한 결구로 되어 있다.

우다라(우따라)가 마하-깟짜야나(迦旃延, Kaccāyana 또는 Kaccāna)<sup>67)</sup>에게 작은 집을 지어 주자, 우다라의 어머니는 그의 선물을 미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동의가 없이 이러한 식으로 은둔자에게 주는 음

67) 迦旃延: 부처의 십대제자 중 教義에 대한 논의를 펴는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녀서 ‘論議第一’이라 불린다.

식과 음료는 무엇이든 지간에 너의 내세에 피로 변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원에 공양하는 날에는 공작새의 꼬리 깃털 한 송이 바치는 것을 아들에게 허락하였다. 사후 그녀는 아귀로 태어났지만 공작새 꼬리 깃털 한 송이를 바친 공양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의 머리칼은 검고 윤택있고 곱슬하고 아름다우며 길었다. 그런데 그녀가 갠지스 강물을 마시려고 下界할 때마다 강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다. 이렇게 방랑의 55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갠지스 강둑에 앉아 있는 장로 칸카레바따(Kankhârevata)를 보고 물을 떠 줄 것을 부탁한다. 연유를 묻는 그에게 아귀는 전생의 죄업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칸카레바따가 아귀의 이름으로 승들에게 물, 음식, 樹皮로 만든 옷 등을 선물하였다. 이 공양의 공덕이 아귀에게 회향하여 아귀는 天神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 4) 地藏菩薩

지옥의 죄수들을 구해 주는 사명을 띤 지장(끄시띠가르바 Ksitigarbha)<sup>68)</sup> 보살을 주제로 엮어진 『地藏菩薩本願經』<sup>69)</sup>에는 그의 전생에 있었던 두 救母故事가 나온다. 먼저는 한 바라문 여인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은 光目이라 불리는 여인에 관한 것이다. 우선 바라문 여인의 이야기를 읽자.

像法<sup>70)</sup> 시기에 한 바라문 여인은 그 前世의 복이 깊고 신심이 돈독하였으나 어머니 悅帝利는 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믿고 삼보를

68) “ksiti”란 땅을 뜻하고 “garbhah”는 태나 子宮의 뜻을 지니고 있어 “舍藏”이라고 漢譯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지장이란 모태가 아기를 잉태하고 땅이 만물을 길러 주는 것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뜻한다. 또한 『地藏十輪經』(大 411, 권13, 玄奘역)에 이르기를 “모든 고통을 편안히 받아 참음이 대지와 같고 고요히 생각하고 빈틈 없음은 秘藏과 같다 安忍不動猶如大地, 精慮深密猶如秘藏” 라고 지장의 의미를 풀이하였다. 지장은 중국에서 觀世音, 文殊, 普賢과 함께 사대 보살이 되었다.

69) 大 412, 권13, 實叉難陀Sikṣānanda(652~710경) 역, pp.777~790.

70) 불멸 500년 후의 1000년 기간. 그전을 正法 그후를 末法이라 한다.

업신여졌다. 그래서 목숨을 마치자 혼이 無間地獄<sup>71)</sup>에 떨어졌다. 바라문 여인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집을 팔아 널리 향과 꽃 및 제 공양 도구를 마련해 크게 공양을 일으켰다. 한 절에서 覺華定自在王如來의 교시를 받고, 귀가하여 단좌한 채 覺華定自在王如來 명호를 생각하다 홀연히 大鐵圍山의 서쪽 第一重海에 이르렀다. 그 곳의 鬼王인 無毒은 바라문 여인에게 悅帝利 여죄수가 孝順無逆한 자식의 공양 덕으로 하늘에 태어난지 이미 삼일이 되었음과 覺華定自在王如來 답사에 보시하면 자신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無間 죄인들이 地獄교를 마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바라문 여인은 잠시 후 꿈과 같이 돌아와서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 자재왕여래 塔像 앞에서 큰 서원을 세웠다. “원컨대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짓고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리니 나는 널리 방편을 펴서 그들이 해탈하도록 하리라!” 이 때의 바라문 여인이 나중에 지장 보살이 되었다.<sup>72)</sup>

죄를 지어 지옥에 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공양을 드리니 여래가 그 청을 듣고 지옥을 벗어나 하늘에 왕생하게 해준다던가, 어머니를 찾으러 직접 지옥을 순례한다던가, 여래에게 보시하면 바라문 여인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無間 죄인들도 모두 즐거움을 얻으며 지옥 생을 마칠 수 있다든지 하는 모든 요소는 중국 문학 작품 중 目連變文의 내용과 일치한다. 여기서 역시 『地裝菩薩本願經』에 실린 光目の 緣起를 읽어보자.<sup>73)</sup>

像法時代に 廣度衆生하는 한 아라한이 있었는데 光目이라 불리는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亡母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고 싶었는데, 아라한

71) 무간지옥은 아버지옥을 가리킨다. 고문이 쉬지 않는다는 뜻.

72) 大 412, 권13, pp.778下~779上.

73) 大 412, 권13, pp.780下~781中를 읽을 것.

이 모친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광목은 모친을 위해 一心으로 淸淨蓮華目如來에게 공양·발원하니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대지옥의 썩는 면할 수 있었으나 딸이 거느린 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야만 하였다.

태어난 지 삼일이 되지 않아 아기는 슬피 울면서 전생의 딸에게 惡道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호소하였다. 光目은 청정연화목여래 앞에서 세계에 지옥 및 三惡道가 존재하는 한 부처가 되지 않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보살이 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 이러한 발심을 들은 여래는 감동, 친한 몸으로 재생한 光目的 어머니로 하여금 13세로 그 악업을 마치고 無憂國土에 태어나서 무량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었다.

대충 이와 같은 것이 어머니의 지옥고를 통하여 결국은 冥官이 된 흥미 있는 지장 고사이다. 目連變文 三種 중 「目連緣起」와 「大目乾連冥間救母變文」에 의하면 목련의 어머니 靑提婦人은 아들이 행한 우란분 행사 덕으로 아귀고를 벗어나지만 먼저 王舍城의 한 마리 개로 태어나야 했다. 그리고 목련을 만나 사람의 목소리로 악도를 벗어나게 해 달라고 호소하니 효자는 다시 49인의 승을 초칭, 그들에게 칠일 기도를 청해서 마침내 어머니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목련변문의 이러한 점진적 救濟는 光目的 경우와 비슷하다.

#### IV. 결론

이제 불교의 효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유기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기존의 왜곡된 학설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의 많은 석굴, 탑, 조

각, 그림 등의 유적지나 유물들은 재가 신도는 물론 승려가 현생 부모의 안녕 또는 亡父母의 勝處 탄생을 염원하며 자식의 이름으로 바쳤던 공양물들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佛書에는 부모의 존재론적 의미, 효의 중요성, 효도 방법 등과 같은 孝論이 상당히 정치하게 짜여져 있었다. 이것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도중 불교의 진정한 효란 그저 부모에게 상의하달이나 上命下服 식으로 순종하거나 물질적으로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하여금 신앙, 자유, 도덕, 관용, 지식의 완성으로 인도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효도는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가르침일 것이다.

한편 본생담에 의하면 석가모니는 전생에 부모를 위한 지극한 희생 덕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출생, 출가하여 성불에 이를 수 있었고, 성불 후에는 깨달은 정법을 통하여 부모를 해탈지로 인도하는 大孝를 실천하였다.

부처의 제자들, 목련, 사리불, 우다라, 지장 등은 각자 부모를 지옥으로부터 구해 내었고, 특히 목련은 지옥 뿐 아니라 환상계의 어머니도 권면하여 勝處에서 태어나도록 했다. 그런데 이 불제자들의 地獄救母는 모두 보시(다나dāna)와 공양의 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불교교단의 물질적 필요성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초기의 상가가 정착 수도원 조직으로 변하면서 보시가 불교의 중심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붓다도 佛法僧 삼보에 대한 보시의 구체적인 결과를 수명, 容色, 명예, 명성, 안락 등으로 제시했다(『如是語經』Itivuttaka).<sup>74)</sup> 불제자들의 다양한 地獄救母 고사는 이러한 보시·공양과 효가 어우러진 생성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인도 전통 제례의 영향을 받은 불교 제사 의식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本生 이하 제 고사들은 사실 기술이 아닌 신화적 서술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인도인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현실보다 꿈에서

74) 보시와 교단의 관계는 中村元, 『原始佛敎の生活倫理』, 東京, 春秋社, 1972, pp.33 8~342 참고할 만 하다.

나 가능한 신화적 사고를 더 중시했었다.<sup>75)</sup> 지금까지 佛書에서 인용한 孝論과 효도고사들에 보이는 많은 정황들은 효는 인도 불교의 윤리 중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효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되었음을 말해 준다.

본 논문을 마치기 전에 중국의 효, 인도의 효, 불교의 효, 세 방향의 효를 간략히 비교하겠다. 먼저 인도·힌두 전통의 효는 인생의 4주기<sup>76)</sup> 중 하나인 家住期(grhastha)에서 가문을 전승하고 조상들에 대한 奉祭祀를 행함으로써 가부장적 종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sup>77)</sup> 사회를 유지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되는 이런 힌두의 효는 개인에서 이웃(愛)과 국가(忠)로 이어지는 중국·유교의 효와 近似하다고 할 수 있다.<sup>78)</sup> “孝와 弟는 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다”(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也<sup>79)</sup>)라 하였으니 이런 점에서 유교의 仁은 바로 힌두의 다르마와 상통되고 효는 중국에서는 仁, 인도에서는 다르마(dharma(법, 진리))를 실천하는 근본인 것이다. 그러나 ‘親親思想’<sup>80)</sup>이 개인의 사고는 물론 사회구조의 모든 영역까지 미치는 유교의 효에 비하면 힌두의 효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 약한 것이다.

반면에 불교는 이런 류의 현실적 윤리를 떠나서 완전한 자유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이상적 윤리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실현인 해탈은 부모를 방기함으로써가 아닌 부모를 신앙, 자유, 도덕, 관용, 지식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효가 가부장적 上意下達의

75) 小川貫一, 『佛敎文化史研究』, 京都, 永田文昌堂, 1973, p.165 참조

76) 스승에게서 dharma(법, 진리)를 배우는 梵行期(brahmacarya), 가정생활을 하는 家住期(grhastha), 출가하여 수행을 하는 林棲期(vanaprastha), 이곳 저곳 순례하면서 생을 정리하는 遊行期(samyāsīn)로 나뉘어진다.

77) 힌두의 가족 윤리에 관하여 김호성, 「바가바드기타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종교연구』 19집, 2000, p.88 참조

78) 유교의 효에 관해서 林安弘, 『儒敎孝道思想研究』, 臺北, 文津출판사, 1992를 볼 것.

79) 『論語·學而』 편.

80) ‘친족과 친하다’는 의미로 가장 가까운 부모에서 출발하여 먼 친척에까지 이르는 혈족적 개념이다.

힌두·유교의 효와 다른 상이점이다. 비록 불교의 효가 중국의 효-특히 漢代 이후처럼 절대 이념화 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윤리로서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을 확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키워드: 불교윤리, 불교효, 인도불교, 중국문학, 중국문학과 불교, 불교문학

## 참고문헌

### ■ 略 語

- 大 『大正新修大藏經』, 100권, 東京, 1923~1926.  
 P. 펠리오(Pelliot) 사본  
 S. 스테인(Stein) 사본  
 北 北京 사본

### 1. 原典著作類

#### (가) 중국원전

- 『後漢書』, 북경, 中華書局, 1965.  
 『舊唐書』, 劉昫(887~946) 찬, 16권, 북경, 중화서국, 1975.  
 『原道』, 韓愈(768~824) 저, 『昌黎先生集』, 권11, 『四部叢刊』.

#### (나) 불교대장경

- 『報恩奉盆經』, 東晉(317~420) 무명씨 역, 大 686, 권16, p.780.  
 『出三藏記集』, 僧祐(443~518) 편, 大 2145, 권55, pp.1~114.  
 『大愛道般泥洹經』, 白法祖(3세기~4세기) 역, 大 144, 권2, pp.867~869.  
 『大乘生心地觀經』, 般若(744~810경, 원명: Prajñā) 譯, 大 159, 권3, pp.290~329.  
 『大方便佛報恩經』, 무명씨 편, 大 156, 권3, pp.127~130.  
 『大唐西域記』, 玄奘(602~664) 저, 大 2087, 권51, pp.867~947.  
 『地藏菩薩本願經』, 實叉難陀(Sikṣānanda) 역, 大 412, 권13, pp. 777~789.



- 『法苑珠林』, 道世(683 卒) 편, 大 2122, 권53, pp.269~1030.
- 『梵網經』, 鳩摩羅什(350~409) 역, 大 1484, 권24, pp.1010~1075.
- 『方廣大莊嚴經』, 디바카라Divākara(613~688) 역, 大 187, 권3.
- 『佛母經』, 무명씨, 大 2919, 권85, p.1463.
- 『佛母般泥洹經』, 慧簡(5세기) 역, 大 145, 권2, pp.869~870.
- 『父母恩難報經』, 安世高(2세기 중엽) 역, 大 684, 권16, pp. 778~779.
- 『觀無量壽佛經』, 曇摩耶舍Kālayasas(5세기) 역, 大 365, 권12, pp.340~346.
- 『淨飯王般涅槃經』, 沮渠京聲(5세기) 역, 大 512, 권14.
- 『經律異相』, 寶唱(5세기 말~6세기 초)편, 大 2121, 권 53, pp.1~268.
- 『六度集經』, 康僧會(3세기) 역, 大 152, 권3, pp.1~52.
- 『彌蘭經』, 康僧會(3세기 중엽) 역, 大 152, 권3, p.21.
- 『摩訶摩耶經』, 曇曜(5세기) 역, 大 383, 권12, pp.1005~1014.
- 『菩薩睺子經』, 無名씨 역, 大 174, 권3, pp.436~438.
- 『普曜經』, 竺法護(?~310 이후) 역, 大 186, 권3, pp.483~538.
- 『善生子經』, 支法度(3세기) 역, 大 17, 권1, pp.252~255.
- 『睺子經』, 聖堅(IV세기)역, 大 175, 권3, p.438.
- 『尸迦羅越六方禮經』(일명 『六方禮經』), 安世高(2세기) 역, 大 16, 권1, pp.250~252.
- 『四十二章經』, 竺法蘭(1세기) 역, 大 784, 권17, pp.722~724.
- 『賢愚經』, 慧覺(5세기) 역, 大 202, 권4, pp.356~376.
- 『孟蘭盆經』, 竺法護(265~313경), 大 685, 권16, p.779.
- 『孟蘭盆經疏』, 宗密(780~841), 大 1792, 권39, pp.505~512.
- 『孟蘭盆疏新記』, 元照(1048~1116) 저, 續藏經, 京都, 1905~1912, I, 35-2.
- 『孟蘭盆經讚述』, 慧淨(578경~645) 저, 돈황 사본 p.2269.
- 『雜寶藏經』, 吉迦夜(5세기)와 曇曜(5세기) 편, 大 203, 권4, pp. 447~499.
- 『增一阿含經』, Gautama Samghadeva(4세기) 역, 大 125, 권2, pp.549~830.
- 『中阿含經』, 曇雲僧伽提婆Gautama Samgahadeva(4세기) 역, 大 26, 권1, pp.421~809.

## 2. 研究著作類

### (가) 한국책

- 김재성 편저, 『빠알리어사전』 2권, 서울, 한국불교대학출판사, 1994.
- 김호성, 「바가바드기타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종교연구』 19집, 2000, pp.83~103.
- 張椿錫, 「敦煌文學 중의 母性愛」, 『中國人文科學』 17, 1998, pp. 137~168.
- 張椿錫, 「目連 說話 중 羅卜 故事의 轉變과 그 原形」, 『中國語文學』 30, 1997, pp.365~398.
- 張椿錫, 「사마본생의 연변」, 『중국인문과학』 16, 1997, pp.189~ 216.
- 張光直 저, 이철 역, 『신화, 미술, 제사』, 서울, 동문선, 1990.
- 김형준 편, 『인도신화』, 서울, 청아 출판사, 1994.
- 이은구, 『인도문화의 이해』, 서울, 세창 출판사, 1995.
- 『Upanisad』, 이재숙 역, 서울, 한길 출판사, 1996.

### (나) 중국책

- 丁福保 편, 『佛敎大辭典』, 상해서점, 1991, p.1260(원본 1922년 발행).
- 童光俠, 「佛說孟蘭盆經與目連救母變文」, 『敦煌學輯刊』, 1990, 1, pp.100~104.
- 林安弘, 『儒敎孝道思想研究』, 臺北, 文津출판사, 1992.
- 劉禎, 『中國民間目連文化』, 成都, 巴蜀書店, 1997.
- 羅宗濤, 『敦煌講經變文研究』, 臺北, 文史哲출판사, 1972.
- 潘重規, 『敦煌變文集新書』, 臺北, 文化大學中文研究所, 1984.
- 饒宗頤, 「孝順觀念與敦煌佛曲」, 『敦煌學』, 홍콩, 1974, pp.71~89.
- 中國佛敎協會編, 『中國佛敎』, 上海, 智識出版社, 권3, 1989.
- 周紹良, 白化文 편, 『敦煌變文論文錄』, 상해, 상해고적출판사, 1982, 2권.

(다) 일본책

青木正兒, 「敦煌遺書 ‘目連緣起’ ‘大目乾連冥間救母變文’ 及び ‘降魔變栴座文’ に就て», 『支那學』 4-3, 1927, pp.425~432.

本田義英, 「孟蘭盆經と淨土孟蘭盆經」, 『佛典の内相と外相』, 京都, 弘文堂書房, 1934, pp.557~577.

金岡照光, 「中國民間における目連説話の性格」, 『佛教史學』 7-4, 京都, 1959, pp.16~37.

金岡照光, 『敦煌の文學』, 東京, 大東出版社, 1971.

川崎ミチコ, 「佛母經について」, 『東洋大學文學部紀要』 40, 1988, pp.167~193.

川崎ミチコ, 「佛母讚管見」, 『東洋大學文學部紀要』 41, 1988, pp. 119~135.

倉石武四郎, 「目連救母行孝戲文に就て」, 『支那學』 3-10, 京都, 1925, pp.731~750.

倉石武四郎, 「目連變文紹介の後に」, 『支那學』 4-3, 1927, pp.432~440.

牧田諦亮, 『疑經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6.

中村元, 『原始佛教の生活倫理』, 東京, 春秋社, 1972.

中村元, 「儒家思想對佛典漢譯帶來的影響」, 『세계종교연구』 8, 1982, pp.26~34.

小川貫一, 『佛教文化史研究』, 京都, 永田文昌堂, 1973.

澤田瑞穂, 「十恩徳と十報恩」, 『佛教と中國文學』, 東京, 1975, pp. 67~78.

池田澄達, 「孟蘭盆經について」, 『宗教研究』 3-1, 京都, 1926, pp. 59~64.

岩本裕, 『佛教説話研究序説』, 東京, 法藏館, 1967.

岩本裕, 『目連傳説與孟蘭盆』, 法藏館, 1968.

(라) 서양책

Burnouf, M. E., *Introduction à l'histoire du bouddhisme indien*, 파리, Maisonneuve, 1876.

Cowell E. B., *The jātaṅga*, 런던, Luzac & co., 1985~1913, 6권+index.

De Groot, Jan J. M., *Fêtes annuellement célébrées à Emoui*, 파리, 1886, 2 권

- Demiéville, P. 의 편, *Hôbôgirin*, 파리-東京, 7권-, 1929-.
- Fausböll V., *The jâtaka*, 런던, Trubner & co., 1877~1897, 6권 참조.
- Feer, Léon, “Maitrakanyaka-Mittavindaka”, *Journal Asiatique* 7, 파리, 1878, pp. 360~443.
- Gehman, H. S., *The miner anthologies of the pali canon*, 런던, The Pali Texte Society, 권 4, 1974.
- Hardy E., *Peta-vatthu*, 런던, The Pali Text Society, 1894.
- Jang Chun-seok, *Le concept bouddhique de pitié filiale dans la littérature chinoise: des oeuvres inspirées des jâtaka et des sûtra*, 파리 7 대학 학위논문, 1997.
- Jaworski, J., “L’avalambana sûtra de la terre pure”, *Monumenta Serica* I, 北京, 1935~1936, pp.82~107.
- Jones, J. J., *The Mahâvastu*, London, Luzac & co., 1949.
- kenneth (K. S.), *Bouddhisme in China*, 프린스턴 대학 출판사, 1972.
- kenneth (K.S.), Ch’en, “Filial Piety in Chinese Buddhis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28, Massachusetts, 1968, pp.81~97.
- Kern H., *Manual of indian buddhism*, 스트라스부르그, Trübner, 1896.
- Lamotte, L., *Histoire du bouddhisme indien (des origine à l’ère Saka)*, Louvain 대학, 1959.
- Oldenberg, H., “Jâtakastudien”, *Nachrichten von der kgl.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Philologisch-historische Klasse, 1918.
- Przyluski, J., “Les rites d’avalambana”, *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벨기에,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1982, 권1, pp.221~225.
- Schopen, Gregorie, “Filial piety and the monk in the practice of indian buddhism: A question of sinicization viewed from the other side”, *T’ong pao(통보)*, 70, 1984, pp.110~126.

## A Aspect of The Filial Piety in Indian Buddhism

Jang, Chun-seok

Buddhism started in India as a religion advocating the life of departing household life and family. However, contrary when it was came to China, it was changed to emphasize the virtue of filial piety. This kind of view seems to be generally accepted. So we may think that there are very few contents of saying about filial piety in Indian Buddhism. Nevertheless, Gregory Schopen has tried to conform whether this view is true or not, and has examined the early Indian Buddhist inscriptions of donations. As the result of his study, he finds out the fact that early Buddhism in India also has some descriptions of filial piety. The main content of the descriptions is about the reasons why people undertake acts of religious giving is that they want to make the living or dead parents of donner get benefits. This was a very important practice of their religious life in India. This was also very important to monks. But we think that the materials used by Schopen are not enough for dealing with the whole figure of filial piety in Indian Buddhist.

Then in order to make a further study, we have searched the discussions and stories on the filial piety in Tripitaka. About the materials of discussions, there are *Sishi er zang jing*(四十二章經),

*Fanwang jing*(梵網經), *Liufang li jing*(六方禮經), *Guan wuliang shoufo jing*(觀無量壽佛經), *Shanshengzi jing*(善生子經), *Zengyi ahan jing*(增一阿含經), *Fumu en nanbao jing*(父母恩難報經), *Xiaozhi jing*(孝子經), *Dacheng bensheng xindi guan jing*(大乘本生心地觀經) and *Maitrakanyaka*. Especially *Maitrakanyaka* written in sanscrit contains a long passage indicating a clear concept of filial piety in Indian Buddhist. About the materials of stories, there are stories of *Suddhodana*, *Mâyâ*, *Mahâprajâpatî*, *Maitrakanyaka*, *Sujâta*, *Syâma*, *Maudgalyâyana*, *Sâriputra*, *Uttara*, *Ksitigarbha*. In them, *Suddhodana*, *Mâyâ*, *Mahâprajâpatî* are the Sâkyamuni's parent stories; *Maitrakanyaka*, *Sujâta*, *Syâma* are the Jâtaka stories; *Maudgalyâyana*, *Sâriputra*, *Uttara*, *Ksitigarbha* are the Sâkyamuni's disciple stor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sources, we can find out that the filial piety was one of very important morals in Indian Buddhism, and that 'the filial piety-culture' was variously developed as well. The true filial piety consists in leading parents to the religion, liberty, moral, tolerance and knowledge-perfection. Reaching to this standard, according to buddhist, it may be called to accomplish the Grand Filial Piety.